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3년도 제25호

### 이준희 기자의 '여기 VAR'

누가 진짜 '체육인'의 명예를 훼손했을까

이준희 한겨레 기자

### 스포츠혁신 4년 ③

스포츠 혁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오대양, 최윤정, 김용현 뉴스타파 기자

### 경인지역 스포츠클럽, 운동부서 논란 속출

반복되는 유소년 스포츠 가혹행위... "폐쇄적 문화 바꿔야"

송승윤 연합뉴스 기자

### 국제축구연맹(FIFA)

"FIFA, 2030년 월드컵 개최국 선정시 인권을 최우선시해야"

김다원 한국 NGO신문 기자

### 비위를 문제 삼은 해고 vs 부당 해고

고위간부 잇따라 '부당해고'... 전북체육회는 왜?

조수영 전주MBC 기자

### 2023 KBO 신인 드래프트

KBO 신인드래프트 접수... 학폭 관련 서약서, 생기부 제출

김주희 뉴시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누가 진짜 ‘체육인’의 명예를 훼손했을까

이주 청소년 농구단 [글로벌 프렌즈](#)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낀 감정은 생경함이었다. 각양각색 아이들이 모여 함께 농구를 하는 모습이 익숙하지 않기도 했지만, 농구 그 자체를 즐기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현장은 오랜만이였기 때문이다. 프로·국가대표라는 이름을 달고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직업선수가 되기 위한 바늘구멍을 뚫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다른 청소년들의 경기와는 확연히 다른 풍경이었다.

물론 둘 중 어느 한쪽이 옳다거나 더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운동을 직업으로 삼는 이들과 취미로 즐기는 이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 다 스포츠가 가진 다양한 모습 중의 하나이고, 우리는 양쪽 모두로부터 다양한 가치를 느끼고 배울 수 있다. 다만 스포츠 기자로서 다니는 현장이 다소 엘리트 스포츠에 치우쳐져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스포츠 취재를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다. ‘현장’, ‘체육인’ 같은 말이다. 특히 얼마 전 3주기를 맞은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고 최속현 선수](#)가 스포츠 폭력에 못 이겨 세상을 떠난 2020년 6월26일부터는 이 말들이 더욱 기승을 부렸다. 스포츠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기성 체육계가 “현장을 모르고, 체육인을 무시하는 이야기”라고 맞섰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현장과 체육계는 무엇일까. 최근 대한체육회가 2027 충청권 여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조직위 구성을 두고 [보인 모습](#)을 보면, 그 실마리가 보인다. 대한체육회는 사무총장 인선에 반대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결의문을 냈다. 시군구체육회장·경기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지며 세를 과시했다. 대한체육회가 반대하는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까지 한](#) 인사는 “체육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즈음 이주민 스포츠 교실에서 만난 한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주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느는 건 정말 좋지만, 이걸 체육회나 협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현장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늘어난 예산이 우리 같은 밑바닥까지 올 거라고 기대도 안 한다.” 약 20년을 생활체육 현장에서 뛰어온 그에게 체육회와 협회는 불신의 대상일 뿐이었다. 기성 체육계가 말하는 현장과 체육인에 포함되지 못한 ‘바깥’에서 스포츠를 전파하는 이들의 목소리였다.

이처럼 체육계가 스포츠 영역을 한정하고 벽을 공고히 하는 사이, 엘리트 체육마저 사양길에 들어섰다. 비인기 종목은 이미 선수 수급에 한계를 느낀 지 오래고, 인기 종목들도 선수 부족으로 허덕인다.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국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년체전 출전권을 제한당한 난민 2세 씨름 선수 김웬디(11)군 같은 이들이 좌절을 느끼는 동안, 한쪽에선 선수가 없어 문을 닫는 운동부가 줄을 잇는다.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마이나 귀도(19)는 “한국에서 스포츠를 하려면 인생을 걸고 도전해야 한다고 들었다”며 “한국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스포츠는 기본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제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라는 철학을 중심으로, 스포츠 현장과 체육인의 개념부터 확장할 때다. 한 소년이 국적을 이유로 대회 참가 권리마저 박탈당할 때야말로, 체육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스포츠 혁신 4년 ③ 스포츠 혁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참담함, 삽질, 무기력, 패배감.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 등 체육계 구조 개선 작업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입에서 연신 거친 말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유소년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말하는 대목에서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다시는 폭력과 인권침해가 당연시되는 과거의 체육계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며 머리를 맞댔던 사람들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2019년 체육계 성추문 사태, 이른바 스포츠 미투 사태 이후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체육계 구조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15명의 민간 위원, 5명의 차관급 관료들이 모였다. 당시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던 함은주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그때가 체육계를 바꿀 절호의 기회였다고 말했다. 금메달을 목에 건 올림픽 영웅이 성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폭로됐고, 스포츠 인권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관심이 모였다. 민-관 위원들 사이에는 '적어도 선수들이 폭력에 시달리면서 메달을 따려고 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혁신위는 1년에 걸쳐 7개의 권고안, 52개 세부과제를 만들었다.

핵심은 체육계 전반의 인식과 구조를 바꾸는 것이었다. 국위선양이라는 목표를 위해 선수의 인권이 희생되는 이른바 국가 중심의 스포츠 정책, 승리지상주의의 엘리트 스포츠 양성 정책과 결별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스포츠 정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학령 인구 감소와 체육 기피 현상, 또 그로 인한 선수 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체육계 전반의 저변을 넓히는 작업도 포함됐다. 열악한 고용 환경 속에 성적과 입시를 쫓을 수밖에 없는 체육 지도자, 체육 산업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혁신위가 내놓은 7차례의 권고안은 촘촘히 짜여 있다. 1차 권고안에는 스포츠 인권 침해 대응 방안이, 2차 권고안에서는 엘리트 선수 육성 중심의 학교스포츠 시스템 개선책이 담겼다. 3, 4차 권고안에는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증진하는 정책, 보편적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을 규정하는 정책을 제언했다. 5차 권고안에는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을 통한 스포츠 생태계 구축 방안을, 6, 7차 권고안에는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과 체육단체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스포츠기본법, 체육인복지법, 스포츠클럽법 등이 시행되고,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됐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스포츠 혁신 작업은 표류하고 있다. 체육계는 혁신위 권고안 내용에 반발했고, 관료들은 무관심했다. 윤석열 정부는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지난 2월 대한민국 체육비전 보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엘리트 선수 육성과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표류하는 체육 정책 속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열악한 인권 상황에 놓여있는 유소년 선수들이다. 지난해 4월 발생한 [김포FC 소속 유소년 선수 정 모 군의 죽음](#)은 달라지지 않은 체육 현장의 인권 실태가 고스란히 나타난 사례다.

뉴스타파는 스포츠 혁신의 이정표를 세우는 작업에 참여했던 스포츠계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스포츠혁신위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던 함은주 문화연대 집행위원, 정용철 서강대 스포츠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2019년 현장의 인권실태를 전수조사한 김현수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 스포츠 인권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연구해 온 김대희 부경대 교수 등이다. 당시 스포츠 혁신안에 담은 전문가의 고민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현 정부 들어 감지되는 스포츠혁신의 역행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물었다.



# 반복되는 유소년 스포츠 가혹행위... “폐쇄적 문화 바꿔야”



“이런 환경에 노출되게 해 부모와 어른으로서 정말 미안합니다“

인천의 한 리틀야구단에 2년째 자녀를 보내고 있는 A군의 학부모 B씨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운동하는 아이들이 학대당해가며 훈련하는 모습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B씨는 리틀야구단에서 자녀가 감독 C씨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 피해를 봤다며 다른 학부모 11명과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C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자녀 소속팀과 다른 리틀야구단 감독인 C씨가 운동장을 함께 쓰는 과정에서 유소년 선수들을 야구방망이와 야구공 등으로 폭행하고 욕설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인천·경기 지역 유소년 스포츠 현장에서 지도자나 선수 간 폭언과 폭행, 성추행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인천의 한 중학교에선 운동부 소속 학생이 동급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 학교 운동부 소속 D(16)군은 지난해 5~8월 복근을 단련시켜준다는 이유로 E(16)군의 배를 때리거나 스파링을 이유로 강제로 글러브를 끼게 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10월 D군에게 출석 정지 7일 등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해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D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은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 중이다. 해당 학교에선 E군 등 일부 선수가 해당 운동부 코치로부터 상습 폭행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시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지난 4월에는 K리그2 김포FC 유소년팀 숙소에서 고등학교 1학년 선수 6명이 2학년 선수에게 바지를 내리게 하는 등 성추행하는 일도 있었다. 김포FC에선 1년 전인 지난해 4월에는 10대 유소년팀 선수가 지도자들의 폭언과 동료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스포츠계에선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와 폐쇄적인 훈련 장소 등 구조적인 문제가 유소년 스포츠 내 병폐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선배나 감독·코치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나 선수들이 직접 인권 침해 사례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경기도의 한 유소년 축구클럽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전모(43)씨는 "처음엔 아이가 취미로 다니다가 소질과 의욕을 보이면서부터 진지하게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부당한 일을 안 당해본 것은 아니지만 아쉬운 것은 선수 쪽이라 현실적으로 언급조차 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 박모(48)씨도 "감독이나 코치 눈에 들기 위해선 아이의 역량 외에도 부모의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만두고 싶어도 아이가 또래 모임에 끼지 못할까 봐 쉽게 그러지도 못한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유소년 스포츠계에 만연한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선 지도자들이 답습해온 불합리한 관행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유원 세종대 체육학과 교수는 "종목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다가 지도자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자신이 겪은 악습도 교육 과정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종목별 협회 차원에서도 폭행 방지를 위한 교양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정하고 선수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FIFA, 2030 월드컵 개최국 선정시 인권을 최우선시해야”

인권 단체, 노동조합, 선수 및 팬으로 구성된 글로벌연합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2030년 남자 축구 월드컵 개최지를 선정할 때 인권을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2일 밝혔다.

'스포츠 및 권리 연합'(Sport & Rights Alliance)은 국제앰네스티가 의뢰하고 15개국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입찰 평가 절차에 반영하도록 FIFA에 요청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인권이 개최지 선정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답했다. FIFA가 기반을 둔 스위스에서는 무려 68%를 기록했다.

개최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인권을 꼽은 사람이 '체육단체의 상업적 수익'을 우선순위로 꼽은 사람 13%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

국제앰네스티의 스티브 콕번 경제·사회정의 국장은 "대중은 월드컵이 그들이 사랑하는 경기를 기념하고 결코 착취, 억압 또는 차별의 플랫폼을 제공하지 않도록 인권이 최우선 순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FIFA는 2018년과 2022년 대회를 각각 러시아와 카타르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2026년 월드컵 유치에서 처음으로 인권 기준을 도입했다.

이러한 기준이 다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FIFA의 2030년 개최국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무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말했다.

FIFA가 2020년에 인권 약속을 포함하는 "지속 가능성 전략"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과 관련해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 수십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은 학대에 대한 보상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축구 서포터즈 유럽'의 로난 에바인 전무는 "우리 축구 지지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존중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적절한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고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으며 인권 운동가들이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구속력 있는 보장을 원한다"고 말했다.

'스포츠 및 권리 연합'의 안드레아 플로렌스 이사는 "2017년부터 FIFA는 인권 책임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뤘지만 인권 평가가 체계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며 "FIFA가 자신의 정책과 규정에 대해 진지함을 보여주기 위해 2030년 월드컵 개최지를 선정할 때 인권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고위간부 잇따라 '부당해고'... 전북체육회는 왜?

## ◀앵커▶

전북체육회가 요즘 부당해고 논란으로 소란합니다. 비위를 문제 삼아 복수의 간부급 직원을 해고했지만, 오히려 부당해고라는 노동당국의 판단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간 250억 원이 넘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조직의 허술한 인사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지난해 최고위급에 해당하는 본부장급 직원을 해고한 전북체육회, 직장내 괴롭힘과 잘못된 업무추진비 집행이 이유였지만, 노동당국은 당시 해고가 부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은 겁니다.

[김승민 / 전 전북체육회 본부장(해고 당사자, 지난해 6월)]  
"도를 넘는 갑질 이상의 인권유린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업무에 복귀하자 전북체육회는 올해 인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이번엔 징계절차를 갖춰 똑같은 간부직원에게 소명기회를 보장했는데, 최종 결론은 또 한 번의 해고처분이었습니다.

[전북체육회 관계자]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직원이잖아요. 직원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라고 봐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봤잖아요."

하지만 노동당국의 판단은, 이번에도 부당해고였습니다. 일부 잘못만 인정될 뿐, 해고는 지나쳤다는 판단입니다. 체육회의 부당해고 논란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선수들의 체력 상태를 분석하고 있는 전북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도 부서장 공석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간부가 일을 태만하게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타갔다는 이유 등으로 올해 해고된 겁니다.

이에 대한 노동당국 판단, 또 부당해고였습니다. 전북체육회가 문제 삼은 비위 대부분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잇따른 부당해고 논란에, 허술한 인사행정이 도마에 오른 전북체육회는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전북체육회 관계자]  
"(분쟁절차가) 진행 중이라 큰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온 것 가지고 이야기 해야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체육회는 회장이 징계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의 전권을 쥐고 있는 상황, 내부를 단속하고 줄세우기 위해 징계를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자료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33757>



## 2023 KBO 신인 드래프트

# KBO 신인드래프트 접수... 학폭 관련 서약서, 생기부 제출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6일부터 2024 신인드래프트 지명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대상자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 등록된 고교 또는 대학 졸업 예정 선수 및 관련 KBO 규약에 따라 지명 참가가 허용된 선수 중 지명 참가를 희망하는 이들로,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다.

드래프트는 오는 9월14일에 열린다.

이번 신인드래프트는 지난해에 이어 기존 1차지명과 2차지명이 통합된 전면드래프트 방식으로 총 11라운드까지 진행된다.

또한 4년제(3년제 포함)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의 신인드래프트 참가를 허용하는 '얼리드래프트' 제도가 시행된다. 얼리드래프트 참가를 희망하는 선수는 2학년이 표기된 재학 증명서 또는 2학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학교 공식 문서와 함께 학교장 추천서 스캔본을 추가 제출하면 된다.

접수 방법은 참가 자격을 갖춘 선수가 직접 KBO 신인지명 대상 선수 등록 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이행에 따라 재학 중 징계, 부상 이력을 포함해 학교 폭력 관련 서약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본인 동의 하에 제출해야 한다.

이외 참가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KBO 신인 지명 대상 선수 등록 시스템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 주간 스포츠 소식

스포츠계 인종차별, 대충 넘어갈 수 없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 idxno = 215832>

오일 머니, 스포츠를 지배하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6230072>

세종시 장애인체육, 전국 대회 메달 싹쓸이

[https://newsis.com/view/? id = NISX20230627\\_0002353476&cID = 10818&pID = 10800](https://newsis.com/view/? id = NISX20230627_0002353476&cID = 10818&pID = 10800)

축구지도자 채용 면접 1등인데...고양시체육회장 한마디에 탈락?

<https://news.tf.co.kr/read/national/2026327.htm>

광주시체육회 '선관위 출신' 외부 감사관 위촉

<https://www.news1.kr/articles/5088585>

"장애인체육 발전 노력,韓 10점 만점에 11점!" 파슨스 IPC위원장의 찬사[선수포럼 현장인터뷰]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 id = 202306270100206390026601&servicedate = 20230626>

양천구민체육시설 '무료 셔틀버스' 3년 만 운행 재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62707012731902>

60대에 신은 발레슈즈...베이비부머, '시니어 체육' 판을 바꾸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7426.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7426.html)

전주교대, 대운동장 시민에게 개방...“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기대”

<https://www.news1.kr/articles/5088927>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